

## 지속 가능한 평화의 필요성과 시급성

에이야 벤자민 리보 와릴레

남수단 여성아동복지부 장관, 남수단

내외 귀빈 여러분,

남수단에서 인사드립니다. 올해 세계여성평화 콘퍼런스에서 발제하게 되어 실로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는 각자의 생각, 경험들을 자유롭게 나누며 보다 평화로운 세계로 함께 나아가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남수단의 국민들은 직접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분쟁의 대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분쟁은 가정과 사회, 그리고 국가의 희망을 파괴합니다. 사람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정신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폭력에 노출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전 인구가 영향을 받고, 이는 삶의 모든 부분에서 명백히 드러나며, 갈등의 악순환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저는 남편을 잃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는 정말 훈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장례를 치르지도 못하고 마음에 응어리가 진 채 일평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님을 알지만, 그 누구도 저와 같은 일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과부들과, 가족을 잃고 홀로 버려진 고아들을 돋는 일을 많이 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같은 갈등이 되풀이되게 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수단의 국민으로서 우리는 폭력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남수단의 국민, 특히 우리 여성들은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남수단의 희망의 빛이 될 것입니다.

지금 수천 명의 수단과 남수단의 국민들, 특히 여성과 어린이들이 현재 하루빨리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쟁을 피해 도망치고 있습니다. 이 남수단 피난민들은 주로 수단에 정착해왔는데, 이제 그들은 그곳에서조차 강제로 추방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빨리의 전쟁을 중단하고 대화로 분쟁을 해결하기를 촉구합니다. 전쟁은 우리 국민들에게 고통만을 더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원하는 평화는 단지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정의할 때 ‘또 다른 무언가’가 없는 상태로 정의하지 않죠. 평화는 정의와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여성으로서 저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 바라건대, 전쟁이 무너뜨린 것들을 재건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처를 치유하며 아이들을 돌보고 국가 간 화해의 씨앗을 심습니다.

여성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면서, 우리는 여성들도 사회에 새로운 관점과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음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여성은 더 이상 수동적인 피해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변화의 주체입니다.



지속 가능한 평화는 국민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들이 대화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과, 모든 사회구성원에 대한 보호와 교육을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들이 자기 자신과 국가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안전하고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여성들이 해야 합니다.

남수단의 여성으로서, 우리는 평화가 쉽지 않은 여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넘어야 할 산들이 많지만, 우리는 강인합니다. 그 어떤 역경도 우리를 멈출 수 없으며,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전 세계 여성 여러분, 우리 모두 연대하여 경험을 공유하고, 평화롭고 풍요로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시다.  
감사합니다.

